

영어교과서와 영문법교육

황종배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영문법이 우리의 영어교육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을 현재의 교육과정과 영어교과서를 분석하여 진단해보고 영문법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나타난 영문법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고찰해 보고, 또 교육과정의 내용에 나타난 영문법 교육의 방법 및 지향점을 파악한 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영어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의하여 제작된 교과서들은 구체적으로 영문법을 어떤 구성과 방법으로 제시하는지, 또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구조들은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비교 조사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난 영어 문법 및 영문법 교육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이라는 커다란 전제를 바탕으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문법의 명시적인 설명이나 제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자언어 활동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형식'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문법 구조를 포함하는 교과서의 개발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문법 구조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제적인 언어형식의 제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포괄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부분은 예외적인 교과서도 있지만 각 단원별로 대부분 1쪽 정도의 분량을 문법을 제시하고 연습하는데 할당하고 있으며, 전체 쪽수에 대한 문법 관련 쪽수의 비율은 학년별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법을 제시하는 형식에 있어서 한두 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단원을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문법 구조를 포함한 예문과 함께 간단한 연습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즉각적인 강화를 꾀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의 학년별, 단원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과서 간 비교는 특정 문법 구조의 제시가 한 교과서 내에서 혹은 다른 교과서와의 비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문법 구조들 간의 상대적 난이도에 대한 연구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교과서 집필자들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로부터 우리의 영문법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면, 우선 문법 교육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영문법 관련 항목들은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단원에서 차지하는 쪽수에 있어서나 문법을 제시하는 형식에 있어서 개별 교과서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문법을 제시한 후에 일어나는 강화를 위한 연습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교과서가 단순한 적용 능력만을 요구하는 등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론 교육과정과 집필지침에 나타난 요구 사항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을

제시하고 문법을 연습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교과서 집필자들이 충분하고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집필자들이 교과서에서의 문법을 한 단원의 정리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문법 제시의 형식과 문법 연습 방법이 교과서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형식’에는 37개 유형의 문법 구조가 예문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집필자라면 누구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형식을 보고 교과서에 문법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어떻게(What &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37개 유형의 언어형식 가운데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교과서에 제시하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다. 물론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교육과정에 문법 항목들 간의 순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필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문법에 관한 집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까지의 교육영문법 분야에서 문법 구조의 절대적 난이도 혹은 상대적 학습의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교육과정 혹은 집필지침을 통해서 문법 구조의 상대적 순서와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문법 구조와 문법 항목들에 대한 언어 습득 혹은 교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황종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영문학과

전화: 02)450-3344

이메일: jongbai@konkuk.ac.kr